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 正史의 『地理志』와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의 地理類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ibliography of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Classification and Origin of Literature

- Centering on the *Comprehensive Geographic Information* and *Sago Jeonseo Chongmok's* Historycal Sector of Geography -

趙 永 來 (Cho, Yong-Lae)**

◁ 목 차 ▷

1. 서 론
2. 역대 正史 속의 地理와 地理志
3. 중국 지리 문헌 분류와 그 맹아적 특징
4. 「七志」에서 「新唐書·藝文志」까지 지리 문헌의 분류
5. 「총목」 史部 地理類의 子目 분류와 그 특징
6.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문헌의 분류라는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통시기 중국의 문헌 분류 중에 地理類는 항상 史學에 예속되어 학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紀傳體라는 史體의 특성에서 기원한 것으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二十四史 正史에 수록된 『地理志』의 내용은 절대 다수가 행정단위, 강역의 범위, 호구와 산천과 지형 상황을 수록했다. 『地理志』는 특정한 왕조의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기술된 "王朝地理"와 "沿革地理"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정사 『地理志』 저술의 전통은 隋唐에 이르러 一統志와 地方志 등이 출현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淸代에 편찬된 『四庫全書總目提要』 역시 지리 문헌을 史部에 아래에 편재해 배열했다. 원래 지리라는 학술은 兩漢시기에는 주로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획득된 경험을 근거로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거나, 미래를 예측했던 "術"의 지식체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地理'라는 정식 명칭의 분류항목이 四部 분류법의 정착과 함께 정식으로 史部에 편제, 점차 이질적, 통합적 요소를 지닌 문헌들을 종합했다. 宋代에 이르러 地理類의 문헌은 王朝와 沿革地理, 疆理天下의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반면에 전통지리학의 가치를 대변하는 신화와 허구적 내용이 수록된 『山海經』의 가치를 부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기도 했다. 淸代에 편찬된 『四庫全書總目提要』는 전대의 분류법을 집대성해 지리 문헌의 종류를 모두 10가지로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

* 본 논문은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 보호학문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과제번호:B00034).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is815@hanmail.net)

접수일: 2012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www.kci.go.kr

러한 문헌 분류는 중국 지리학과 지리 문헌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要語: 地理, 地理文獻,「地理志」,「經籍志」,「四庫全書總目提要」,「山海經」

<ABSTRACT>

The Paper discussed the origin of basic geographical ideas in Geographical classification of ancient Chinese literature. Sought through the perspective of bibliometrics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四庫全書總目提要>) of Literature Geography basis of its origin were analyzed. On the other hand, an affair with a historical perspective history books written is biographical style(正史) of *Comprehensive geographic information* (地理志)Dynasty around geography(王朝地理) and evolution of Geography(沿革地理) changes noted. Geographical origin of the objective measurement and recording of natural phenomena, and that prediction has begun. Came to the *Suishu・Jingjizhi*(<隋書・經籍志>) Geography and came to settle in the formal literature has classified items. According to the idea, basing on the public and private bibliographies, the article tried the best reconstrect the landscape of the geography on the Song dynasty. While the ancient geography tradition of the *Sanhaijing*(<山海經>) has been gradually to downplay consciously. Historical Geography of China for a long time history department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Literature Geography and came to the Qing Dynasty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was bound to both the historical part was divided into 10 categories. Scientific bibliography of the geography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rather than the classification of an independent dynasty geography and history have been enslaved strongly.

Key words: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Literature Geography, *Comprehensive geographic information*, *Suishu・Jingjizhi*, *Sanhaijing*, the volution of Geography, the Dynasty around geography

www.kci.go.kr

1. 서 론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文獻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고대로부터 문헌의 정리와 편찬은 왕조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다. “地理”[1]라는 학술 분야의 문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역대 왕조는 수차례 대규모 저술 작업을 단행해 “經”, “志”, “圖”, “記” 등 다양한 서명과 체례의 문헌을 남겼다. 二十四史 중의 「經籍志」나 「藝文志」 등에 수록된 지리 목록의 그 수량과 종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문헌은 다수가 이미 산실되어 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존하는 역사지리 문헌은 적어도 족히 1만여 종류에 근접한다는 연구 통계도 있다.[2] 역사지리 문헌의 체례는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 발전해왔는데, 書誌學, 혹은 目錄學의 관점에서 보면 대략 ① 正史의 地理志 ② 全國城性 總志 ③ 地方志 ④ 專書 ⑤ 游記 ⑥ 地圖 등이나,[3] 혹은 ① 史志 ② 地理總志 ③ 游記 ④ 邊疆地理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4]

역사지리학은 歷史時代의 공간, 즉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역사지리학이 한국 학계에 알려진 것은 근래의 일로 근대적 성격의 ‘景觀(Landscape)연구’로 소개되었다. 地理志와 邑誌을 근간으로 지방사의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역사적인 틀 속에서 지방 연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5] 이러한 경향은 중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저명한 학자인 侯仁之는 역사지리학은 현대 지리학의 구성부분으로 주된 연구대상은 역사시기 지리 경관의 변화와 인간 활동 간의 관계 및 과거 지리경관의 복원, 그리고 지리경관의 변화와 발전에 내재하는 규칙을 연구해 역사시기 지리경관의 형성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라 했다.[6]

---

1) “지리”라는 용어는 중국의 경우는 儒家 경전인 「周易 · 系辭」에서 “우러러 天文을 보고, 머리를 숙여 地理를 관찰한다(仰以觀於天文, 俯以察 於地理).”라는 것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서양의 경우 기원전 2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가 「지리학(Geographica)」이란 저술에서 “geographica”라는 용어에서 기원했다.
2) 「中國地方志聯合目錄」에 근거하면 현존하는 지방지는 대략 8,500種에 이른다고 한다.
3) 王雙倍, “中國歷史地理文獻的類型及其特徵,” 「歷史教學」 10期(1998), 46-49.
4) 靳生禾, 「中國歷史地理文獻概論」 (山西人民出版社, 1987).
5) 역사지리연구모임, 「역사지리학강의」 (사회평론, 2011), 17-18.

www.kci.go.kr

본고 목적은 지리학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리학의 학문적 정의에는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7] 역사 문헌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이질성이 매우 높은 인문, 자연현상들이 상호연관 되어 있는 통합체로 지리공간을 분석, 종합함으로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를 이해하는 것이다"[8]라는 정의에 주목하고 싶다. 지리와 관련한 문헌분류의 범주와 명칭 역시 지리학 학문 자체에 내재하는 '이질성'과 '통합성'에 근거한 것은 아닐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유럽의 고대 지식이 근대의 계통적인 지식으로 비약적 진보를 통해 박물학(l'histoire naturelle)으로 발전한 역사성을 고찰했다. 그 핵심은 "분류하기"에 있다고 했다.[9] 지식체계라는 것은 "분류"를 통해서 동일한 지식이 다른 종류의 지식으로 분류되어 변화하고, 이를 통해 동・식물을 포괄하는 박물학적인 지식의 그물망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문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유형적으로 푸코의 "분류하기"와 유사한 개념이 '校讎'와 '目錄'의 영역에서 출현했다. 西漢 시기 劉向과 劉歆 부자로부터 校讐學이란 개념이 출현했고, 문헌의 분류가 분명하면 학술도 자명해 진다는 鄭樵의 연구 성과[10] 등을 통해 淸代 乾嘉 연간에 이르러 교수학은 정식 目錄學으로 발전했다. 이후 문헌의 분류라는 것은 章學誠의 주장처럼 "학술의 기원적인 고찰(考鏡源流)"과 "학술의 학파를 구분(辨章學術)"을 근간으로 인식했다.[11] 근대에 이르러 목록학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이하 『총목』으로 약칭)는 淸나라 乾隆帝 47년(1782)에

6) 侯仁之, 「歷史地理學的理論與實踐」(上海人民出版社, 1979), 6-8.
7) 지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로 등장한 지리학에 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이희연, "1장 지리학의 본질," 『지리학사』(법문사, 1995)를 참고할 수 있다.
8) 李喜演, 「地理學史」(法文社, 1995), 5.
9) 미셸푸코 저, 이광래 역, 「말과 사물」(민음사, 1995), 163-171.
10) 鄭樵, 「通志」 卷71 校讐略: "類例旣分, 學術自明."
11) 章學誠, 「校讐通義・序」曰 : "校讎之義, 蓋自劉向父子部次條別, 將以辨章學術, 考鏡源流."

www.kci.go.kr

황제의 명에 따라 紀昀이 편찬한 종합적 성격의 목록서이다.[12] 漢代 이후 출현한 목록서 가운데 권질의 수가 가장 풍부하고, 분류가 합당하며, 고증이 정밀하고, 논평 등이 가장 공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13] 주목할 점은 「총목」은 西漢의 劉向, 劉歆의 「別錄」과 「七略」으로부터 시작해 「漢書·藝文志」(이하 「漢志」로 약칭), 「隋書·經籍志」(이하 「隋志」로 약칭) 등의 관찬과 「遂初堂書目」, 「群齋讀書志」 등의 私家 목록서 등 역대 문헌의 분류체계를 집대성한 결정체라는 점이다. 「總目」의 四部, 즉 "經部", "史部", "子部", "集部"으로 역대 문헌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법 역시 처음에는 七部나 六部 등의 과도기적인 변천 과정을 통해 "분류하기"가 四部로 귀납되었다.

「총목」의 문헌 분류에서 흥미로운 점은 地理類의 문헌은 "史部"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리"는 왜 史部에 분류를 했고, "地理"라는 학문의 기원은 어떠한 형태로, 어떤 시기에 등장했을까? 그리고 문헌은 어떠한 분류체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고, 지리라는 범주는 어떻게 확대되었을까? 필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찍이 「총목」 史部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14] 주지하듯 「총목」 史部에는 ① 正史, ② 編年, ③ 紀事本末, ④ 別史, ⑤ 雜史, ⑥ 詔令奏議, ⑦ 傳記, ⑧ 史鈔, ⑨ 載記, ⑩ 時令, ⑪ 地理, ⑫ 職官, ⑬ 政書, ⑭ 目錄, ⑮ 史評 등 15개의 類目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地理類가 어떻게,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四部」에 분류되기 시작했는지 국내에는 아직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중국의 역사지리 문헌의 분류에 관한 연구동향을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학계의 경우 청대 考據學의 연구 성과를 근간으로 주로 20세기 20년대 시작되었다. 顧頡剛과 譚其驤 등 "禹貢學派"를 중심으로 「二十四史」의 「地理志」에

12) 「총목」은 正史 중의 「藝文志」와 「經籍志」 등 史志目錄의 수준과 규모를 크게 초월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역대의 「別錄」, 「崇文總目」, 「直齋書錄解題」 등의 목록학 저술의 전통을 계승했다. 각 문헌 분류의 部類의 序論, 解題, 자저 소개, 版本의 源流 등 방면에 史志目錄과는 달리 편폭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13) 余慶蓉, 王晉卿 공저, 南台祐, 宋日基 역, 「중국목록학사상사」 (태일사, 2009), 296.

14) 拙稿, "「四庫全書總目」 史部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연구," 「書誌學硏究」 제44집(2009), 서지학회.

www.kci.go.kr

대한 補注와 注釋에 매진하여 「正史地理志彙釋叢刊」를 출간했고, 이러한 연구 성과와 경향은 최근까지 "二十四史硏究資料叢刊"의 출간으로 계승되고 있다.[15] 중국의 「총목」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四庫總目學"이란 개념과 함께 「총목」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16] 전체적으로 국내 학계의 「地理志」와 「總目」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듯하다.

역사지리 문헌의 "기원"적인 연구란 대략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목록학적 관점에서 「총목」 史部의 地理類의 분류 항목의 고찰을 전대로 소급해 연구한다는 의미이다. ① 宮殿疏, ② 總志, ③ 都會郡縣, ④ 河渠, ⑤ 邊防, ⑥ 山川, ⑦ 古迹, ⑧ 雜記, ⑨ 游記, ⑩ 外記 등 10개의 子目이 「총목」의 지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자목들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역대 정사의 「地理志」와 「藝文志」 혹은 「經籍志」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17] 둘째, 司馬遷의 「史記」에는 "地理"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史志의 형식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대신 "河渠書"와 "平準書"의 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리 관련 지식을 수록했다. 왜 그랬을까?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西漢시기에 "地理"라는 개념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거나, 혹은 학술적인 미성숙, 혹은 미분화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현상에 대해 필자는 초기 지리학의 맹아적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목록학적으로 「總目」에서 地理類의 저술이 史部에 편재된 원인을 史學史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史"와 "志"라는 史體 결합과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史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활동, 과거의 大事, 경험적인 通鑑, 인물과 사건의

15) 華林甫, "二十世紀正史地理志硏究綜述," 「中國地方志」 2期(2006).

16) 「총목」과 관련된 연구동향은 拙稿, "「사고전서총목」 史部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연구," 494-495쪽을 참고할 것. 그리고 陳曉華, "20世紀'四庫總目學'硏究述略," 「圖書情報工作」 第11卷(2002). ; 陳曉華, "'四庫總目學'硏究述略," 「西南師範大學學報」 第32卷 4期(2006). ; 傅榮賢, 「「漢書·藝文志」硏究源流考」 (黃山書社, 2007)와 陳曉華, 「"四庫總目學"史硏究」 (商務印書館, 2008) ;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地理"는 문헌의 분류라는 목록학적 관점에서 「七錄·傳記錄」의 "土地部"에서 처음 등장했다가, 「隋書·經籍志」에서 "지리"라는 명칭이 정식화 했다. 이후 官撰와 私撰의 목록서는 모두 史部에 地理類를 설치했다. 어떤 사찬 목록서는 "方輿", "圖志", "地志", "輿地" 등으로 "地理"를 대신했고, 그 아래 다양한 子目을 구비했다.

www.kci.go.kr

褒貶 등의 종합적인 기술이라면 志는 史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헌자료, 조사자료, 근거자료, 보조 자료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역사학과 목록학적인 연구 방법의 결합을 통해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의 가능성은 역사지리학의 연구 대상이 考古地理學 외에도 문헌 중심의 "地誌"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제목과 본문에서 의미하는 "史志"란 "史志目錄"의 준말로 주로 「藝文志」와 「經籍志」, 혹은 「地理志」를 포함하는, 小序가 있지만 解題없이 書名만을 나열한 목록서를 지칭한다.[18]

2. 역대 正史 속의 地理와 地理志

2.1 正史 속의 '地理'

중국의 역사지리 문헌의 유형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바로 정사의 「地理志」이다. 紀傳體 체례 중에 "志"의 기원은 역대 문물과 제도의 연혁을 수록한 「史記」의 "八表"[19]에서 기원했다. 二十四史 정사 중에 「地理志」는 班固의 「漢書」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郡國志」, 「州郡志」, 「地形志」, 「職方考」 등으로 설치되었다. 「地理志」는 기전체 정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독자적인 성격의 다양한 지리서를 수록했다. "지리지"라는 명칭 사용한 정사는 12개이고, 「州郡志」는 2개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표 1>은 역대 정사에서 「地理志」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三國과 南北朝時期 정치적 혼란으로 행정구획과 강역의 유동적인 변화 때문에 지리지는 다수가 史志에서 생략되었다. 또 兩漢과 魏晉南北朝의 사서 편찬이 주로 私撰이 주류를 형성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분열시기 지리 관련

18) 중국의 역대 "史志目錄"의 분류와 그 범주에 대해서는 졸저, "「四庫全書總目」 史部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496-497쪽)를 참고하라.

19) 「史記」의 史志 중에 八書란 ①禮書, ②樂書, ③律書, ④曆書, ⑤天官書, ⑥封禪書, ⑦河渠書, ⑧平準書 등을 지칭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의 부족이나 散佚 등의 물리적인 원인과 함께, 왕조의 정통성과 연관해서 분열시기 다양한 왕조의 지리지를 종합해 기술하기에는 개인의 역량이 부족했을 것이다.

<표 1> 역대 정사중의 지리지의 설치 여부와 명칭

순서	史書	志名	순서	史書	志名
1	「史記」	/	13	「南史」	/
2	「漢書」	「地理志」	14	「北史」	/
3	「後漢書」	「郡國志」	15	「隋書」	「地理志」
4	「三國志」	/	16	「新唐書」	「地理志」
5	「晋書」	「地理志」	17	「新五代史」	「職方考」
6	「宋書」	「州郡志」	18	「宋史」	「地理志」
7	「南齊書」	「州郡志」	19	「遼史」	「地理志」
8	「梁書」	/	20	「金史」	「地理志」
9	「陳書」	/	21	「元史」	「地理志」
10	「魏書」	「地形志」	22	「明史」	「地理志」
11	「北齊書」	/	23	「舊唐書」	「地理志」
12	「周書」	/	24	「舊五代史」	「地理志」

唐代 이후에 官撰의 전통이 확립되면서 「隋書」 이후 正史에는 「地理志」가 모두 설치되었다. 기전체 체례에서 “紀”, “傳”과 地理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그렇다면 二十四史 정사의 시작을 알렸던 「史記」에는 왜 독립된 史志의 「地理志」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일까? 八書에는 ‘地理書’가 없는데, 秦漢이후 전개된 大統一와 郡縣制를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구획과 연혁지리의 내용을 누락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에 <河渠書>와 <平準書>에 지리 관련 내용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史記」 권29 「河渠書」에는 황하의 범람과 치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고로 황하의 치수를 급선무로 삼아서 河道를 소통했는데, 물줄기는 積石에서 시작해 龍門을 지나서 남쪽으로 華陰에 이르렀으며 동쪽으로는 砥柱에 이르러 바로 孟津과 雒汭에 이르렀다가 大邳에 이른다. (중략) 우(禹)는 황하는 높은

www.kci.go.kr

> 지세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져 평지에서 (하도로) 쉽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수차례 수재가 일어난다고 여겼다. 그래서 황하의 물줄기를 두 갈래로 나누어 막힌 물의 흐름을 뚫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황하의 흐름을 높은 곳에서 이끌어 降水를 지나 大陸에 이르게 하여 물줄기를 아홉 갈래로 나누었다. 다시 이를 한곳에 모이게 했는데 이를 '逆下'라고 불렀는데, 이 물줄기는 발해로 흘러들어갔다."[20]

이상과 같이 사마천은 禹가 황하 범람을 위해 2차례로 나누어 단행한 河渠의 설치와 하도(河道)가 흘러가는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河渠書」에는 鴻溝, 鄭國渠, 漕渠, 龍首渠 등의 수리공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치수와 관련해서 사마천은 河渠書의 文尾에서 "권력을 장악한 신하는 앞을 다투어서 치수(治水)의 필요성과 그 이익에 대해서 간언했다. (중략) 심하도다! 河水가 인류에게 이익과 재해를 주는데 그 영향력이여!"[21]라며 인간과 치수의 역사적 관계를 종합해 총평하기도 했다.

「平準書」에서도 사마천은 한나라 초기 賦稅의 징수와 관련해 오늘날의 經濟地理와 유사한 내용 언급했다. 서북의 변방 지역의 墾田제도와 관련해 郡와 縣, 그리고 亭에 이르는 행정체계와 郡縣의 설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 "가장 먼저 張掖, 酒泉郡을 설치한 후에 上郡、朔方、西河、河西에 開田官을 두고 변방의 60만의 군사를 징발해 墾田을 하도록 했다. (중략) 封君에서 300석의 관리까지는 官階에 따라서 암컷 말을 天下의 驛亭에 공출하도록 하고, 역정이 이 말을 사육하고 정부는 매년 이에 稅를 징수했다."[22]

「史記」의 이러한 八書의 전통은 「地理志」 이외에도 다른 正史에도 계속 계승되었고, 아래의 <표 2>처럼 「溝恤志」, 「食貨志」, 「河渠書」 등의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

20) 「史記」 권29 河渠書: "故道河自積石曆龍門, 南到華陰, 東東砥柱, 及孟津、雒汭, 至于大邳. (中略) 於是禹以爲河所從來者高, 水湍悍, 難以行平地, 數爲敗, 乃二渠以引其河. 北載之高地, 過降水, 至於大陸, 播爲九河, 同爲逆河, 入於勃海."

21) 「史記」 권29 河渠書: "用事者爭言水利 (中略) 甚哉, 水之爲利害也!"

22) 「史記」 卷30 평준서: "初置張掖、酒泉郡, 而上郡、朔方、西河、河西開田官, 斥塞卒六十万人戍田之. (中略) 令封君以下至三百石以上吏, 以差出牝馬天下亭, 亭有畜牸馬, 歲課息."

www.kci.go.kr

<표 2> 지리지와 연관된 史志를 수록한 正史

순서	史書	志名	순서	史書	志名
1	「史記」	「河渠書」, 「平準書」	13	「南史」	/
2	「漢書」	「溝恤志」, 「食貨志」	14	「北史」	/
3	「後漢書」	/	15	「隋書」	「食貨志」
4	「三國志」	/	16	「新唐書」	「食貨志」
5	「晋書」	「食貨志」	17	「新五代史」	「食貨志」
6	「宋書」	/	18	「宋史」	「河渠書」, 「食貨志」
7	「南齊書」	/	19	「遼史」	「食貨志」
8	「梁書」	/	20	「金史」	「河渠書」, 「食貨志」
9	「陳書」	/	21	「元史」	「河渠書」, 「食貨志」
10	「魏書」	「食貨志」	22	「明史」	「河渠書」, 「食貨志」
11	「北齊書」	/	23	「舊唐書」	「食貨志」
12	「周書」	/	24	「舊五代史」	「食貨志」

「地理志」를 중심으로 형성된 正史 속의 지리 체계는 '이질성'과 '통합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식체계를 형성하며, 「紀」와 「傳」의 "學"에 대해서 "術"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었다.

2.2 역대 정사 「地理志」의 내용과 그 특징

「漢書」의 "十志"는 「史記」의 "八書"를 계승한 체례이다. "紀"와 "傳"이 사회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시간적인 '通時'적 기술이라고 한다면, "書"와 "志"는 특정한 역사 시기의 '共時'적인 서술에 해당한다.[23] 「漢書」는 기전체 단대사의 시조로 '正統'과 군주의 천하 통치의 이념을 「地理志」를 통해서 체현하고자 했다.

「한서·지리지」는 西漢시기의 행정과 자연 환경을 郡과 國－縣, 道, 侯의 행정 단위에 따라서 戶口, 군현의 廢置, 地名의 변화, 특산물, 治所, 山川, 湖澤, 명승

23) 그 중에 「地理志」는 史書의 체례로 특정한 시점을 근거로 행정구획과 강역을 근거한 최초의 지리서로, 「禹貢」과 「周官」을 근거해서 九州 등의 개념을 근거해 특히 전한 시기 지리 沿革와 山川, 戶口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www.kci.go.kr

고적, 교통, 토지 면적, 그리고 郡-國-縣-道의 총 수량을 기술했다. 이런 전통은 이후 『續漢書』에서 『明史』까지 부단히 계승되었다. 『地理志』의 서술 기점과 행정 단위, 民戶 등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역대 정사 속의 「地理志」의 기술 시점과 주요 내용

	지리지와 권수	著者	기술 연대의 시점과 주요 내용
1	『漢書·地理志』 3권	班 固	郡國戶口는 元始2年(2)을 기점으로, 郡國의 강역은 元延(B.C12-B.C9)과 綏和(B.C8-B.C7)까지 기술. 武帝에서 孝平까지 郡國103개, 縣邑1,314개, 道33개, 侯國241개, 동서 강역의 길이9,302리, 南北 3,368리, 民戶1,223,362호, 人口59,994,978.
2	『續漢書·郡國志』 5권	司馬彪	永和 5년(140), 河南尹下戶口를 설명. 郡縣을 근거로 12州의 산천, 풍속, 지형, 방위, 현의 建廢, 인구, 명승고적 등을 기술. 孝順시기 郡과 封國이 105개, 縣, 邑, 道, 侯國이 1080개, 民戶 9,698,630, 人口 4,9150,220.
3	『晋書·地理志』 2卷	房玄齡	太康 3년(282), 『太康地記』를 근거로 西晉시기의 행정구획을 기술. 東晋시기의 僑州와 僑郡도 기술하며 "南"이란 한자를 서두에 두었다.
4	『宋書·州郡志』 2권	沈 約	大明 8년(464), 郡10개, 縣18, 民戶143,298, 戶口14,556,850 僑州와 僑郡을 대거 폐지하고 해당 지역의 州郡와 통합.
5	『南齊書·州郡志』 2권	蕭子顯	永明 3년(485)의 戶口策을 근거로 『永元志』, 『永明郡國志』, 『元嘉計偕』 등을 참고 호구의 수량을 알지 못해 감히 마음대로 수록하지 한다고 함, 호구 기록이 누락된 것이 단점.
6	『魏書·地形志』 3卷	魏 收	東魏 武定연간(543-550)에 편찬된 『地形志』를 근거. 州郡의 開廢를수록. 王公에게 封한 지역을 郡으로 파악했지만 戶口는 누락, 孝武帝시기 名籍에도 다수 누락된 호구수가 잔존.
7	『隋書·地理志』 4卷	顔師古	隋煬帝 大業 5년(609) 郡縣을 중심으로 산천, 호구, 군현연혁, 郡190, 縣1,255, 戶8,907,546, 人口46,019,956. 개간지 55,854,041頃, 동서 9,300리, 남북 14,815리.
8	『舊唐書·地理志』 4卷	劉 昫	貞觀 13년(639) 天寶 11년(752), 후기는 永泰 이후에 河朔, 隴西 등을 상실하고, 元和 연간의 호구 2萬戶가 누락되어 다시 작성한 天寶시기를 기준으로 작성.
9	『新唐書·地理志』 7卷	歐陽脩	天寶원년(742)에서 天祐연간(911)까지의 州郡. 호구의 증감, 州縣 사이를 행정단위를 赤, 畿, 望, 緊, 上, 中, 下 등 8등급으로 세분. 開元시기 15道를 중심으로 州縣의 연혁을 기술. 軍府, 軍鎭, 城, 戍 등의 변방 행정을 상세히 기술, 인접 국가를 羈縻州로 파악, 灌溉와 渠堰 등의 치수 관련 내용을 상세히 수록. 兩京의 宮闕에 대해서 상세히 수록.

www.kci.go.kr

	지리지와 권수	著者	기술 연대의 시점과 주요 내용
10	「舊五代史·郡縣志」 1卷	薛居正	唐代를 계승하여 五代까지를 기술, 道-府-州-縣의 행정단위의 편제를 간단하개 기술.
11	「新五代史·職方考」 1卷	歐陽脩	唐代를 계승하여 오대의 268개 州를 기술
12	「宋史·地理志」 6卷	脫 脫	元豊 원년(1076년), 京畿와 24路, 燕雲의 상실, 京城宮室, 戶口지역별 토산품 등을수록. 북송과 남송의 행정 구획을 분리해서 별도로 기술. 路-府-州-縣의 행정체계가 근간. 호구와 특산물 등을 수록.
13	「遼史·地理志」 5卷	脫 脫	重熙 13년(1044), 행정구획 중에 上·中·西·南·東京道를, 淸寧 7년(1061)은 府州縣의 설치를 기술, 5京, 6府, 156개의 州, 郡, 城, 209개의 縣, 52개 部族, 60개 屬國.
14	「金史·地理志」 3卷	脫 脫	19개 路는 大定연간(1161-1189), 州는 泰和 8년(1208). 五京과 14總管府, 후에 軍을 州로 개혁, 散府9, 節鎭36, 防御郡 22, 刺史郡 73, 軍16, 縣632. 京府의 州는 79, 城寨堡關 188, 학급 행정단위 하의 호구 수, 중요한 城寨, 遼와 北宋의 제도를 다수 계승.
15	「元史·地理志」 6卷	宋 濂	至元 3년(1337), 省-路-府-州-縣 의 4級으로 기술, 1개 中書省, 11개 중행서성, 185개 路, 33개 府, 359개 州, 4개 軍, 15개 安撫使, 1,127개 縣, 驛站의 도로, 山川의 지형 등을 수록.
16	「明史·地理志」 7卷	張廷玉	萬曆연간(1573-1620)을 중심으로 天啓와 崇禎시기의 행정구역의 변화도 수록, 京師, 13布政使司, 都指揮使司의 분포. 成祖시기 北平을 北京, 仁宗과 宣宗 이후 남북 二京, 13布政使司의 변화를 수록.

<표 3>을 근거로 역대 「地理志」의 서술 내용과 특징, 및 영향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사의 「地理志」는 史學에 예속되어 「紀」와 「傳」의 이해에 편리를 제공하는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사학에 대한 예속이란 紀傳體라는 史體에 대한 예속이며, 「紀」와 「傳」의 이해를 심화하는 보조적인 "術"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편폭의 長短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正史는 「地理志」의 설치를 통해 당시 왕조가 통치했던 전국의 강역과 행정구획 기술에 주력했다. 16개의 정사 「地理志」는 정권의 번성시기를 기점으로 지방행정 단위 속에 포섭된 통치에 필요한 지역적인 특색을 수록했다. 「후한서」는 '縣'을, 「晋書」는 '州'를, 「宋史」는 '路'를, 「元史」는 '省'을, 「明史」는 '司' 등의 행정 단위를 서술의 綱目으로 삼았다. 「地理志」가 파악하는 호구와 인구수, 토지면적, 특산물과 산천과 도로 등은 실은 「紀」와 「傳」

www.kci.go.kr

의 내용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파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과 지리 문헌 사학에 대해 강한 예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리 문헌의 이러한 성격은 明淸시기까지 지속되며, 중국 전통지리학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정착했다.

둘째, 역대 「地理志」를 통해 지리학의 지식체계의 내용과 구성을 알 수 있다. 「地理志」를 구성한 항목 중에 沿革地理의 내용을 제외하면, <표 3>처럼 주로 ① 戶口, ② 山川, ③ 等第・方位, ④ 鄕聚・鎭, ⑤ 產物, ⑥ 關隘, ⑦ 古迹, ⑧ 軍隊駐所, ⑨ 水利・火臺・鹽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24] 이러한 내용을 보면 「地理志」는 이질성과 통합적 성격의 지리 관련 지식체계를 종합적으로 포괄했다. 기층 행정단위인 "縣級"은 주로 민생과 풍속, 그리고 조세의 징수가 중심이 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경제지리 등의 내용과 군사방어의 목적을 위한 군사지리의 내용을 수록했다. 반면 "統縣"과 그 이상의 府와 路 등의 기술에서는 행정구획의 소속과 수량을 강조하는 沿革地理과 行政地理의 내용을 강조했다.[25] 정사 「地理志」는 연혁지리, 자연지리, 인문지리, 군사지리, 경제지리, 군사지리 등 이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식 체계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셋째, 정사 「地理志」는 독립된 형태의 地理書의 출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후대로 갈수로 행정단위 중심의 「地理志」 서술에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분열과 통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사회분화를 통한 통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제한된 「地理志」의 체례와 분량, 및 변화된 내용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양한 체례의 지리서의 등장은 紀傳體의 폐단이나 한계라기 史志의 한계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정형화된 형식의 「地理志」의 체례와 제한된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효율적인 내용 기술을 위한 노력이 隋代에 이르러 "一統志"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一統志"는 지리 문헌의 한 형식으로

24) 華林甫, "新修'地理志'的學術理論與編纂實踐," 「淸史硏究」 제3기(2008), 124.

<역대 정사 「地理志」의 행정의 구분과 주요 기술내용>

行政等級	항목의 분류
高層政區	沿革, 戶口, 京師와의 거리, 山川
統縣政區	沿革, 戶口, 等第, 貢物, 軍事駐所, 山川
縣級政區	沿革, 山川, 關隘, 古迹, 產物, 鄕聚, 鎭, 水利, 戶數, 方位, 巡檢司, 火臺, 驛, 鹽場, 商埠

25) 華林甫, 「新修"地理志"的學術理論與編纂實踐」, 126쪽.

www.kci.go.kr

「총목」에서는 '總志'로 분류되었다. "一統志"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隋志」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隋代 大業연간에 천하 각 郡에 명을 내려서 郡마다 民風, 習俗, 産物, 地圖 등의 상황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尙書로 올리도록 했다. 그리하여 隋代에 「諸郡物産土俗記」 151권과 「區宇圖志」 129卷, 「諸州圖經集」 100권 등을 저술했다."[26]

황제의 명에 의해 전국의 郡이 모두 참여, 「地理志」와는 다른 '一統志'라는 「諸郡物産土俗記」 등의 지리서가 처음 등장을 했고, 이는 唐代의 「元和郡縣圖志」 40卷 등 출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地理志」와는 별도로 一統志를 편찬하는 전통은 이후 明淸시기까지 지속되었다.[27]

중국의 역사지리 문헌 중에 정사 「地理志」는 「漢書」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기전체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다. 二十四史중 16개의 「地理志」는 비록 명칭은 조금 달랐지만, 내용상 정치지리와 연혁지리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했다. 뿐만 아니라 「地理志」 기전체의 사학의 「紀」, 「傳」의 이해를 심화하는 "術"의 기능을 수행하면 역사학에 종속되었다. 「地理志」에는 자연, 인문, 경제, 군사지리 등 종합적인 지리서의 성격 함께 다양한 체례의 지리리가 등장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3. 중국 지리 문헌 분류와 그 맹아적 특징

「漢書・藝文志」(이하 「漢志」로 약칭)는 正史 목록서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한서・지리지」라는 체례가 존재했음에도 "地理"라는 지식체

---

26) 「隋書」 卷33 「經籍志」: "隋大業中, 普詔天下諸郡, 條其風俗物産地圖, 上于尙書. 故隋代有「諸郡物産土俗記」一百五十一卷, 「區宇圖志」一百二十九卷, 「諸州圖經集」一百卷."

27) 全國總志의 지리 문헌으로는 수당 이후 「太平寰宇記」 200卷, 「元豊九域志」 10卷, 「輿地紀勝」 200卷, 「大元大一統志」 1300卷, 「寰宇通志」, 「大明一統志」 90卷, 「嘉慶一統志」 560卷, 「古今圖書集成・方輿彙編」 2144卷 등이 있다.

www.kci.go.kr

계는 아직 뚜렷하게 분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리”라는 개념과 문헌의 분류는 『漢志』에는 어떠한 맹아적 형태로 존재했을까? 그리고 지리서가 정식 분류항목으로 출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맹아적 형태의 지리라는 지식체계의 성격과 문헌의 분류의 특징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3.1 6분법의 출현과 지리 문헌 - 『七略』의 “學”, “術”

漢代에 이르러 국가적 사업으로 단행한 도서정리는 무려 7차례였고, 그 중 3차례는 목록이 편찬되었다.[28] 惠帝 4년(기원전191)에 “大收篇籍, 廣開獻書之路”[29]라는 獻書 정책을 실행, 산실된 遺書를 수집했다. 또한 寫書官을 두어 서적의 필사를 담당시키기도 했다. 또한 武帝시기에 이르러 諸子學說의 정리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30] 이 시기에 劉向이 서적을 校勘하며 장서를 분류・정리했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한 최초의 목록서가 바로 『別錄』이다. 이후에도 成帝는 陳農防에게는 遺書의 수집을 명했고, 劉向에게는 수집된 도서의 校讎을 통해 經書, 諸子, 詩賦를 정리시켰고, 任宏은 兵書를, 尹咸은 術數의 도서를, 李柱國은 方技 등의 도서를 정리하도록 했다.[31] 수집한 문헌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劉向이 이를 확인하고 篇目과 함께 提要를 간단히 기술했고, 그의 아들 劉歆이 목록서 편찬 사업을 계승해 저술을 완성했다. 이때 편찬한 목록이 바로 『七略』이다. 後漢시기 光武帝는 洛陽으로 천도한 후에 校書郎인 班固와 傅毅이게 명하여 東觀과 仁壽閣의 도서를 『칠략』에 의해 정리하도록 명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漢書・藝文志』이다.

『別錄』은 현재 산실되어 전하지 않지만, 유흠의 『七略』 내용은 『漢志』에 수록되었고, 6분법의 분류 체계는 『漢志』의 근간이 되었다.[32] 『漢志』에 수록된 도서는

28)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上海古籍出版社, 2005), 127-128.
29) 『漢書』 卷30 『藝文志』.
30) 『漢書』 卷30 『藝文志』: “建藏書之策, 置寫書之官, 下及諸子傳說, 皆禾秘府.”
31) 『漢書』 卷30 『藝文志』.

www.kci.go.kr

모두 13,219권인데 이를 6가지로 분류, 38종의 小類와 그 아래 306家로 세분했다. 구체적인 도서해제는 언급하지 않고 類目만을 나열해 "① 輯略, ② 六藝略, ③ 諸子略, ④ 詩賦略, ⑤ 兵書略, ⑥ 術數略, ⑦ 方技略" 등으로 분류했다. "① 輯略"이란 劉向이 저술한 "提要"로서 先秦학술 사상의 기원과 당시 문헌을 "部次類別, 宣明大道"[33]하게 분류했다.

<표 4>「七略」의 도서 분류

/	六略	類目	卷數
①	六藝略	•易 •書 •詩 •禮 •樂 •春秋 •論語 •孝經 •小學	9
②	諸子略	•儒 •道 •陰陽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	10
③	兵書略	•兵權謀 •兵形勢 •兵陰陽 •兵技巧	4
④	數術略	•天文 •曆譜 •五行 •蓍龜 •雜占 •形法	6
⑤	方技略	•醫經 •經方	4
⑥	詩賦略	•屈賦 •陸賦 •荀賦 •雜賦 •歌詩	5

<표 4>처럼「七略」의 분류체계는 학술면모와 목록사상의 대강을 알게 한다. 儒家 사상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과, 六藝에서 詩賦까지 분류 항목을 고려하면 비교적 체계적인 도서 분류 원칙이 존재했고, 秦漢시기 학술과 지식체계의 개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칠략」에는 "地理"라는 子目은 고사하고 지리와 관련한 문헌 흔적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주목할 점은「七略」으로 대표되는 秦漢시기 학술은 六略을 근거하면 당시는 "學"과 "術"로 양분 된다는 점이다. "學"이란 ① 六藝, ② 諸子, ⑥ 詩賦이고, "術"이란 ③ 兵書, ④ 術數, ⑤ 方技에 해당하는데, "術"이란 方術, 術數 등의 사회과학과 천문과 점복, 의학 등의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실용지식의 범주를 의미한다.[34]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先秦과 兩漢시기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발생했다. "術"이란 원래「說文解字」에서 都邑의 '道路'를 의미했다가, 兩漢시기에는 '方策', '策略',

32)「漢書」卷30「藝文志」: "乃集六藝群書, 種別爲七略."
33) 章學誠,「校讐通義・原道」.
34) 將元卿,「中國圖書分流之沿革」(中華書局, 1946), 28.

www.kci.go.kr

“藝”나 方術과 관련된 技術, 術數 등의 지식체계를 지칭했다.[35] 이런 지식은 주로 天地의 운행과 養生, 治兵 등 宇宙와 生命, 군사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先秦시기 학술 사상의 맹아는 “術數”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보면 가히 그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다.[36]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정사 「地理志」의 “術”적인 요소를 「漢志」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문헌의 분류란 당시의 학술과 지식체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2「漢書·藝文志」의 “形法”과 「山海經」

正史에는 「地理志」 외에 다양한 학술 분야의 도서 목록을 수록한 「藝文志」와 「經籍志」 등의 목록서가 있다.[37] 「漢志」는 「七略」의 체례를 근거한 목록서로, 지리 관련 도서로 ① 六藝略의 「書·禹貢」과 ④ 術數略의 形法에 속한 「山海經」 등으로 양분된다.

<표 5>「書」와 “形法”에 내재된 지리 문헌의 비교

	類目	子目	수록한 도서	유파
①	六藝略	• 書	• 「尙書古文經」 외 9家	9家
⑥	數術略	• 形法	• 「山海經」 13篇, • 「國朝」 7卷, • 「宮宅地形」 20卷, • 「相人」 24卷, • 「相寶劍刀」 20卷, • 「上六畜」 38卷	6家

35) “術”이란 「說文解字」에서는 都邑 중에 있는 道路를 뜻한다(術, 邑中道也). 그래서 「禮記·月令」에는 “審端徑術”의 “徑術”이란 좁은 길을 지칭한다. 이후 兩漢 시기에 “術”은 方法, 策略 등의 뜻으로 「戰國策·魏策」에서는 “臣有百乘之術”로 사용되었고, 「禮記·鄕飮酒義」의 “古之學術道也”의 “藝”, 즉 技術과 재능을 의미했다. 「淮南子·人間訓」에서는 “邊境지역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길흉과 화복을 예측하는 術數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近塞上之人, 有善術者).”라고 했는데, “術”이란 醫術, 占術 등을 포괄하는 方術의 의미를 지닌다.

36) 先秦시기 학술 사상의 맹아를 ① 鬼神, ② 術數, ③ 天, ④ 祖로 분석하는 연구 성과도 있다(楊東莘, 「中國學術史講話」 (江蘇敎育出版社, 2005), 5-12).

37) 二十四史 중에 목록서는 ①「漢書·藝文志」, ②「隋書·經籍志」, ③「舊唐書·經籍志」, ④「新唐書·藝文志」, ⑤「宋史·藝文志」, ⑥「明史·藝文志」 등이 있다.

www.kci.go.kr

「書」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史書로 儒家의 "六經"에 속한다. 「禹貢」은 「書」에 속한 편명으로 大禹의 치수 상황과 함께 전국을 九州[38]를 단위로 분할했다. 그래서 정사의 「地理志」의 序文에는 항상 우공의 治水와 九州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39] 우공의 저술 연대에 「山海經」보다는 늦고, 「한서·지리지」보다는 이르다는 것이 일반 연구자의 주장이다.[40] 반면 「山海經」은 가장 오래된 지리서로 洛陽을 중심으로 전국을 南·西·北·東·中部 등 5部 구분하고 山川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다. 이점은 지리서의 성격에 더욱 근접한 것 같지만, 설화와 신화적 내용 역시 본문의 다수를 차지했다. 그래서 司馬遷은 「山海經」을 신빙성이 없는 불경한 저술로 폄하되었고, 劉歆은 이런 평가를 계승했고, 결국 「漢志」는 본서를 결국 ④ 術數略으로 분류했다.[41] 「漢志」는 ④ 術數略의 "形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形法은 크게 九州의 형세를 들어 그것으로 城郭과 室舍를 세우고, 사람과 六畜의 骨法과 度數, 器物의 形容으로 相을 보고, 또한 그것으로 그것의 聲氣와 貴賤, 吉凶을 구한다. 마치 律에 장단이 있어 작기 소리를 나타냄이 있는 것과 같다.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차에 걸친 자연적 현상의 체현이다. 그러나 形과 氣는 서로 관련이 있다. 또한 形이 있는데 氣가 없고, 氣가 있는데 形이 없기도 한다. 이는 精微가 홀로 다르기 때문이다."[42]

형법에 수록된 도서들은 주로 성곽과 가옥의 건축, 가축의 선별, 각종 사물에 대한 占卜과 예측에 사용되는 생활 중의 실용적 "術"에 해당한다. 자연현상을 경험적으로 귀납해 집대성한 학술이 바로 "術"이었다. 원래 "術數"란 음양오행의 이론체계를 근간으로 易의 象數와 律曆의 象數 등의 방법을 이용해 占卜, 祈禳

38) 「禹貢」에서 언급한 九州란 冀州, 兗州, 靑州, 徐州, 揚州, 荊州, 豫州, 雍州이고 이런 구주의 순서대로 강역, 선천, 지리 상황, 토지의 비옥정도, 부세와 등급, 貢物과 貢道 등을 수록했다.
39) 「漢書·地理志」.
40) 靳生禾, 「中國歷史地理文獻概論」(山西人民出版社, 1987), 30-31.
41) 徐敬浩, 「山海經硏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0-29.
42) 「한서·예문지」: "形法者, 大擧九州之勢以立城郭室舍形, 人及六畜骨法之度數, 器物之形容以求其聲气貴賤吉凶. 優律有長短, 而各徵其聲, 非有鬼神, 數自然也. 然形與氣相首尾, 亦有有其形而無其氣, 有其氣而無其形, 此精微之獨異也."

www.kci.go.kr

등을 실천하는 일종의 '기술적'인 지식체계다.[43] 그래서 術數는 사회발전과 이성의 인식수준, 전통 유학의 영향이 확대되고, 天道와 人事의 기술 수준이 진보하면서 術數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정통 학술사상에서 주변화 되었다. 이는 사회적 변하에 따라서 고대의 易占 등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고대의 기계적 사유는 더 이상 복잡한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漢志』의 "術數"가 『隋志』에서 사라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淸代에 이르러 章學誠은 『術數略』의 子目을 ① 天文, ② 曆譜, ③ 陰陽, ④ 五行, ⑤ 蓍龜, ⑥ 雜占, ⑦ 形法 등 7개 항목으로 종합하면서, 오직 天文과 形法만을 전문적인 항목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44] 張舜徽는 形法에 속한 『山海經』의 5部 편목에 주목하며 사방의 지형을 기술한 지리서로 평가를 했고,[45] 이외에 『國朝』는 『한서·지리지』의 저본이며, 『宮宅地形』은 집과 墓자리를 점치는 내용으로 보았다.[46] 『相人』은 관상을 보는 것이고, 『相寶劍刀』 역시 길흉을 점치는 책이고, 『相六畜』은 가축의 相을 통해 선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7]

『禹貢』은 내용상 『山海經』보다 더욱 지리서에 근접했다. 하지만 『칠략』에서 『우공』은 이미 "六藝略"으로 분류되며 經書라는 "學"의 지위를 확보했다. 반면 오랜 기원에도 불구하고 『산해경과』은 『漢志』에서 "術"의 학술로 구분되어, 占卜과 관상을 보는 실용서로 분류되었다. 주목할 점은 『山海經』의 "經"이란 '經常', '常常' 등 일상 속에서 항상 사용되는 실용지식인 '術'을 의미했다는 점이다.[48] 兩漢시기 지리서는 "學"의 經과 "術"의 經이 양분되었고, 지리와 지리 문헌은 "術"이란 개념 속에 내재되었다.

⑥ 術數略의 자목인 "形法"은 秦漢시기 학술과 학술사상의 변화를 반영한다.

---

43) 趙 益, 『古典術數文獻術論考』 (中華書局, 2005), 2-3.
44) 章學誠著, 王重民通釋, 『校讐通義通釋·補校漢藝文志第10』 (上海古籍出版社), 50.
45) 張舜徽, 『漢書藝文志通釋』 (湖北敎育出版社, 1990), 284-285.
46) 趙益은 『國朝』와 『宮宅地形』은 원래 『國朝宮宅地形』 지형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를 두 권의 책으로 분리했다고 주장했다(趙益, 『古典術數文獻術論考』, 38쪽). 하지만 음양오행을 사용해 점을 보는데 사용되었다는 원래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47) 『漢書·藝文志』와 張舜徽, 『漢書藝文志通釋』, 284-288쪽.
48) "術"이란 실용서의 의미를 가는 "經"은 醫經과 『黃帝內徑』 등의 '經'과도 일맥상통한다.

www.kci.go.kr

춘추전국시기 극심한 사회혼란과 빈번한 전란의 고통에서 학술, 즉 제자백가의 지식체계는 富國强兵과 大統一의 실현을 위한 실천과 실용성을 강조한 "術"의 학술이 더욱 번성했고,[49] 이런 현상은 지리 방면에도 예외는 아니었다.[50] 하지만 兩漢 이후, 전란이 종식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학술은 실천적인 지식보다는 오히려 길흉을 예측하는 지식이 더욱 요구되면서 번성하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특히 董仲舒에 의해서 유학이 國敎化한 이래, 儒學은 길흉을 예측하는 음양오행과 도참설이 결합하며 학술계를 주도했다.[51] 이런 유학적 경향과는 달리 「山海經」을 포함하는 "形法"의 도서는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주지의 선택과 축조, 가축과 기물의 선택에 필요한 점복 등의 경험을 수록했다.

「漢志」의 形法은 圖讖처럼 귀신을 근거하지 않고서, "度數"를 통해 "數之自然"에 도달하려고 했다. 누적된 경험을 통한 획득한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 이를 증명하려는 성격의 "術"이란 지식체계와 문헌이 바로 "形法"인 것이다. 지리적 현상에 대한 경험과 측량의 기록으로 地物과 지리현상을 파악해서 貴賤과 吉凶을 예측하려는 지식체계가 바로 「七略」과 「漢志」의 "術"이며 形法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兩漢시기 지리학의 맹아는 자연현상의 경험적인 관측을 근거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9) 춘추와 전국 시기는 法家에 의한 제도적인 개혁, 縱橫家에 의한 외교 전술의 활용, 兵家에 의한 전쟁 승리 등은 "術"의 지식 체계의 번성은 秦의 六國統一로 현실화했다.

50)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제자백가에도 적지 않은 지리 관련 저술이 수록되기도 했다. 「관자」 중에는 「地圖」, 「度地」, 「水池」가 있고, 「孫子兵法」에는 「地形」, 「九地」 등의 篇章이 있다.

51) 西漢 후기에 출현해 번성한 圖讖의 학설 역시 이런 시대를 대변했다. "讖"이란 신령에 의탁한 예언으로, 항상 그림과 함께 사용해서 圖讖이라고 했다. 이후 도참의 緯書를 출현시켰는데, 東漢 초기에 이르러 讖緯書가 81권이나 되었고, 당시 유학의 儒生들은 「七緯」를 內學으로, 「五經」을 外學으로 삼기도 했다. 緯書를 사용해 천문과 曆數를 논하여 신령의 신비함을 찬양했다. 심지어 王莽과 劉秀의 황제 등극에 모두 참위를 이용했다. 특히 유수는 참위를 통치술에 사용해 經書의 지위를 초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한의 章帝시기에 유생들이 白虎觀에 모여 經義를 토론하고, 班固가 「白虎通議」를 저술했는데, 이 또한 참위설과 음양오행을 흡수해 금문경은 이런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다. 참위설을 반대하는 유생들이 古文經을 연구하기도 했다(翦伯贊, 「中國史綱要」(上) (人民出版社, 1994), 115-116쪽의 내용을 참고할 것).

www.kci.go.kr

4.『七志』에서『新唐書·藝文志』까지 지리 문헌의 분류

4.1『七志』와『七略』속의 地志類의 변화

兩漢 이후 지리서는 점차 形法의 영역에서 벗어나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독자적인 분류항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南齊시기 王儉[52]의『七志·圖譜志』와 阮孝緖[53]의『七錄·紀傳錄』의 "土地部"에서 구체적인 맹아가 출현했다.

『七志』는 "地域과 圖書"를 하나로 묶어서『圖譜志』로 분류했는데, 이는 최초로 '地域類'를 처음으로 독립된 분류항목으로 설치한 것이다. 비록 "地理"의 명칭은 아니지만 '地域'와 '土地'의 명칭으로 그 범주는 구체화되었고, 지리학은 점차 독립된 지식체계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를『칠략』과 다른 목록서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 6>「七志」와「七略」의 類目 비교

	『七志』[54]	類目	『七略』
①	經典志	• 六藝, • 小學, • 史記, • 雜傳	六藝略
②	諸子志	• 古今諸子	諸子略
③	文翰志	• 詩賦	詩賦略
④	軍書志	• 兵書	兵書略
⑤	陰陽志	• 陰陽, • 圖緯	術數略
⑥	術藝志	• 方技	方技略
⑦	圖譜志	• 地域, • 圖書	※신설

52) 왕검(452-489년)은 南齊시기 사람으로 字는 仲寶이며, 東晋의 명문 士族인 王導의 후손이다. 문학에 재능을 발휘해서 劉宋시기 임관, 秘書郎, 秘書丞, 太守 등의 직관을 역임했다. 후에 南齊의 蕭道成에게 초빙되어 尙書令, 學士館主, 太子少府을 담임했다. 그는 劉歆의『七略』을 근거로『七志』를 저술했는데, 특히 지리류의 도서를 중시해서『圖譜志』를 별도로 증설했다. 본서는『隋書·經籍志』를 저술하는데 중요한 底本이 되었다.

53) 완효서(479-536)는 남조 梁의 목록학자로 字는 士宗이며 하남 陳留 출신의 士族이다.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도서를 수집해 목록서 편찬에 전념했다. 梁武帝 普通 연간(520-527년)에 이르러 建康, 즉 현재의 南京에서『七錄』12권을 편찬했다. 解題를 통해 수록된 도서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러한 체례는 후에『수서·경적지』저술의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했다. 현재『칠록』은 망실되었지만 序, 目錄, 인용한 書目 등은『廣弘明集』속에『古今書最』에서 수록되었다.

www.kci.go.kr

「七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史部의 맹아가 '傳記錄'의 설치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왕검은 史書를 '春秋類'와 합친 것은 오류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六藝略"과 "經籍志"에서 史書類의 문헌을 별도로 독립시켰다. 그리고 그 아래 '土地部'라는 子目을 설치했다. 이러한 분류는 「칠지」의 「圖譜志」에서 분류한 '地域 및 圖書'과 일맥상통한다. 비록 '地理'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七志」를 계승해 지리학이 점차 독립된 지식체계를 구비해가는 과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土地學"와 "地域學"으로 대변되는 당시 지리학에 대한 인지수준을 알려주는 것이다.[55] 실천과 실용성을 강조한 "術"의 학술은 ⑤ 陰陽志, ⑥ 術藝志, ⑦ 術技錄 등의 문헌은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통합을 통한 종합적 성격의 지식 체계를 구비했다. 「七略」과 「七志」의 「術數略」, 「方技略」과 「陰陽志」, 「技藝志」 등은 「七錄」에 이르러 모두 「術技錄」으로 포섭되었다. 주목할 점은 史部의 기원이 되었던 「傳記錄」은 "形法"과 서로 분리,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문헌분류의 맹아적 관점에서 볼 때 地理類는 원래 史部와 병렬관계에 있었다.

<표 7> 「七錄」와 「七略」, 「七志」의 類目 비교

/	「七錄」[56]	類目	「七略」	「七志」
①	經典錄	• 易, • 書, • 詩, • 禮, • 樂, • 春秋, • 論語, • 孝經, • 小學	六藝略	經典志
②	傳記錄	• 國史, • 注曆, • 舊事, • 職官, • 儀典, • 法制, • 僞史, • 雜傳, • 鬼神, • 土地, • 牒狀, • 簿錄	*신설	*신설
③	子兵錄	• 儒, • 道, • 陰陽, • 法, • 名, • 墨, • 縱橫, • 雜, • 農, • 小說, • 兵	諸子略 兵書略	諸子志 軍書志
④	文集錄	• 楚辭, • 別集, • 總集, • 雜文	詩賦略	文翰志
⑤	術技錄	• 天文, • 緯讖, • 曆算, • 五行, • 卜筮, • 雜占, • 形法, • 醫經, • 經方, • 雜藝	術數略 方技略	陰陽志 術藝志
⑥	佛法錄	• 戒律, • 禪定, • 智慧, • 疑似, • 論記	*신설	*신설
⑦	仙道錄	• 經戒, • 服餌, • 房中, • 符圖	*신설	*신설

54) 「隋書・經籍志」: "儉又別撰「七志」: 一曰「經典志」, 紀六藝、小學、史記、雜傳 ; 二曰「諸子志」, 紀今古諸子 ; 三曰「文翰志」, 紀詩賦 ; 四曰「軍書志」, 紀兵書 ; 五曰「陰陽志」, 紀陰陽圖緯 ; 六曰「術藝志」, 紀方技 ; 七曰「圖譜志」, 紀地域及圖書."

55) 이러한 새로운 도서 분류의 모색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칠록」은 불교, 도교를 類目으로 수용했고, '簿錄'이란 목록서를 史書類의 子目으로 배열하기도 했다.

www.kci.go.kr

兩漢시기 등장은 「七略」의 분류법은 魏晉南北朝를 거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六部와 四部 분류법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지리학의 지식체계와 문헌 분류도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4.2 「수서·경적지」와 地理類의 독립

「隋志」에 이르러 "地理"는 정식 子目으로 확정되었다. 원래 「隋志」는 四部라는 분류법을 처음 확정했고, 史部 아래에 地理書를 배치했다. 이는 「七略」과 「地理志」의 가치를 전승한 것으로 "術"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隋志」는 隋代는 물론 그 이전 왕조의 亡失된 저록도 함께 수록했기 때문에 학술의 기원과 학술사 연구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수록된 지리서의 규모를 보면, 총 수량은 모두 139部 1,432卷인데 망실된 도서까지 포함하면 140部 1,434卷(망실된 것을 모두 합치면 140部 1,434권)에 달한다.[57] 수록된 도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隋書·經籍志」에 수록된 지리서

書名	卷	著者	書名	卷	著者	書名	卷	著者
山海經	23	郭璞注	隨王入沔記	6	沈懷文	神異經	1	東方朔
水經	3	郭璞注	荊州記	3	(宋)盛弘之	異物志	1	楊孚
黃圖	1	미상	神壤記	1	黃閔	南州異物志	1	方震
洛陽記	4	미상	豫章記	1	雷次宗	蜀志	1	常寬
洛陽記	1	陸機	蜀王本紀	1	楊雄	發蒙記	1	束晳
洛陽宮殿簿	1	미상	三巴記	1	譙周	三輔故事	2	晉世
洛陽圖	1	(晉)楊佺期	珠崖傳	1	盖泓	湘州記	2	庾仲雍
述征記	2	郭緣生	陳留風俗傳	3	圖稱	吳郡記	2	晉顧夷
西征記	2	戴延之	鄴中記	2	晉陸	日南記	1	미상
婁地記	1	(吳)顧啓期	春秋土地名	3	京相璠	江記	5	庾仲雍
風土記	3	(晉)周處	衡山記	1	宗居士	漢水記	5	庾仲雍

56) 阮孝緖, 「七錄·序」, 「廣弘明集」 卷3 (東國譯經院, 2000), 55-59.
57) 「隋書·經籍志」.

www.kci.go.kr

書名	卷	著者	書名	卷	著者	書名	卷	著者
吳興記	3	山謙之	游名山記	1	謝靈運	居名山志	1	謝靈運
吳郡記	1	顧夷	聖賢冢墓記	1	李彤	西征記	1	戴祚
京口記	2	(宋)劉損	佛國記	1	法顯	廬山南陵雲精舍記	20	미상
南徐州記	2	山謙之	游行外國傳	1	智猛	永初山川古今記	6	劉澄之
會稽土地記	1	朱育	交州以南外國傳	1	미상	司州記	2	미상
會稽記	1	賀循	十洲記	1	東方朔	幷帖省置諸郡舊事	1	미상
地記	252	(梁)任昉	洛陽伽藍記	5	楊衒之	巴蜀記	1	미상
交州異物志	1	楊孚	元康六年戶口簿記	3	미상	元嘉六年地記	3	미상
張騫出關志	1	미상	九州郡縣名	9	미상	古來國名	2	미상
十三州志	10	闞駰	江圖	1	張氏	北荒風俗記	2	미상
朝覲記	6	미상	大魏諸州記	21	미상	隋西域圖	3	裴矩
隋區宇圖志	129	미상	諸藩國記	17	미상	方物志	20	許善心

「隋志」의 地理書는 「山海經」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체례와 내용의 지리서를 수록했다. 중요 저술의 書目을 근거로 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比定하여 분류할 수 있다. ① 都會와 地方志: 「洛陽記」, 「洛陽伽藍記」, 「洛陽宮殿簿」, 「三輔故事」, 「鄴中記」, 「會稽記」, 「吳興記」, 「吳郡記」, 「湘州記」, 「蜀志」 등이 있다. ② 河渠: 「水經」, 「漢水記」, 「江圖」, 「江記」 등이 있다. ③ 山川: 「山海經」, 「衡山記」, 「游名山記」, 「居名山志」, 「永初山川古今記」 등이 있다. ④ 游記: 「西征記」, 「游名山記」 등이 있다. ⑤ 外記: 「佛國記」, 「張騫出關志」, 「游行外國傳」, 「交州以南外國傳」, 「朝覲記」, 「諸藩國記」, 「隋西域圖」 등이 있다. ⑥ 異物: 方物: 「陳留風俗傳」, 「神異經」, 「異物志」, 「南州異物志」, 「北荒風俗記」, 「方物志」 등이 있다. ⑦ 沿革地理: 「春秋土地名」, 「十三州志」, 「九州郡縣名」, 「元康六年戶口簿記」, 「元嘉六年地記」, 「古來國名」, 「地記」, 「春秋土地名」, 「十洲記」, 「大魏諸州記」 등이 있다. ⑧ 기타: 「聖賢冢墓記」, 「發蒙記」.

「隋志」에 수록된 지리서의 분류 통해 당시 학술상 비교적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리 지식의 계보를 구비하기 시작했고, 地方志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地方志의 내용은 山川 뿐만이 아니라 異物과 方物이 형식을 통해 개별화된 지역성을 강조했다. 游記와 外記는 당시 지리적 지평이 전국을 물론 외국까지 체계적

www.kci.go.kr

으로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주의할 점은 『隋志』는 정사 『地理志』 편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수의 연혁지리 관련 저술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學'과 '術'의 관계상 地理는 史學에 예속되어 분류된 원인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일 것이다. 후대로 갈수록 지역 통합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사회·경제의 발전이 다양한 지리서를 출현을 촉진시켰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地理志』가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는 지방지 편찬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58]

『隋志』에 수록된 지리서의 다변화는 史學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地理類의 독립이란 隋唐시기 사서 편찬과 사관제도의 專門化, 分業化, 定型化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隋唐시기에 이르러 史書편찬과 사관제도는 전대와 비교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隋文帝는 獻書를 통해서 산실된 문헌을 수집하고, 秘書省에 사관을 두고 國史와 起居注를 편찬했고,[59] 개황 13년(593)에는 개인의 역사 저술을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60] 이후 煬帝 시기에 이르러서는 秘書省와 王府學士 220명을 통해 수집된 다량의 문헌을 정리시켰는데, 그 수량이 무려 37,000卷에 달했다.[61] 唐代에 이르러 高祖인 李淵은 著作局과 太史局을 秘書省에 설치했고, 太宗 貞觀 3년(629)에 이르러 정식으로 國史館을 설치해 宰相의 주관 하에 사관과 학자들이 모여 기전체의 체례를 분담해 사서를 편찬했다. 이렇게 결집된 역량을 근간으로 『魏書』, 『梁書』, 『北齊書』, 『北周書』, 『隋書』 등이 이 시기에 편찬되었다. 史官制度는 唐代에 이르러 私撰의 성격을 과감히 탈피하고 官撰化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史書의 편찬의 점차 官撰化는 制度化·定型化 되면서 帝王과 관련 기사와 사료를 수집하는 '記注官'과 직접 사서를 편찬해 監修하는 '撰述官'으로 양분되며, 직무의 전문화와 세분화 경향이 출현했다.[62]

---

58) 『隋志』에 수록된 『湘州記』, 『司州記』, 『吳郡記』, 『蜀志』, 『會稽記』, 『吳興記』 등의 저술은 모두 지역적 특성을 기술한 지방지에 해당하고, 정사 『地理志』 편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59) 『隋書·文帝紀』: "奏開獻書之路, (中略) 復置著作郎一人, 隸秘書省, 掌國史集注起居."

60) 『册府元龜·國史部·總序』: "詔人間撰集國史, 藏否人物者, 開令禁絶."

61) 『文獻通考·經籍考』: "總集編次, 補續殘缺. (中略) 前後近二十載."

www.kci.go.kr

隋代에 단행한 전국적 규모의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근간으로 출현한 것으로, 唐代에 이르러 제도적 혁신을 통해 사관제도와 사서 저술은 전문화와 집단적인 저술체례로 등장했다. 사서편찬과 사관제도의 전문화, 제도화는 기전체 체례의 저술의 분업화, 전문화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기전체의 핵심은 「紀」와 「傳」이란 "學"과 상대되는 "術"의 성격을 지닌 史志 문헌은 '記注官' 외에도 起居郎, 隸中書省, 直觀 등에 의해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었다.[63] 「隋志」의 지리서는 紀傳體라는 정통사학을 매개로 '學'과 '術'관계에서 史學에 예속된 학술로 파악되었고, 관찬제도와 사관제도의 구비로 그 예속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① 都會와 地方志에서 ⑧ 기타 등과 같은 문헌 분류체계의 세분화로 나타났다.

「隋志」의 地理類의 "小序"에는 지리서의 목적이 백성들에 대한 "敎化"와 "疆理天下"에 수단, 즉 국가통치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 "고대시기 성왕은 백성을 敎化하면서 五方의 土地는 산물, 습속, 풍속 등이 형성되는 원인으로 剛柔와 輕重, 飮食과 衣服 등 그 발현되는 특성은 바꿀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천하를 몇 개의 疆域으로 나누어 그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여 백성들의 이해를 파악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란 이들을 교화하는 것에 있다."[64]

「隋志」는 왕조의 지리공간을 국가가 어떻게 통치하여 "王化"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리라는 학술이 도달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리서가 갖는 "術"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래서 "小序"에 마지막에 앞서 언급했던 大一統의 저술인 「諸郡物產土俗記」, 「區宇圖志」, 「諸州圖經集」 등이 疆理天下를 위해 「隋志」에 수록된 것이다.

---

62) 廖良梅, 「略論唐代史官制度」, 「杭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6卷 第1期(2001), 35.
63) 金毓黻, 「中國史學史」 (河北敎育出版社, 2003), 104.
64) 「隋書·經籍志」: "昔者先王之化民也, 以五方土地, 風氣所生, 剛柔輕重, 飮食衣服, 各有其性, 不可遷變. 是故疆理天下, 物其土宜, 知其利害, 達其志而通其欲, 齊其政而修其敎."

www.kci.go.kr

4.3『新唐書·藝文志』의 지리류의 분석 - 전통지리학의 재평가와 『山海經』의 지위변화

「新唐書·藝文志」(이하「新藝」)는 송나라의 歐陽修와 宋祁 등이 칙명으로 편찬한 正史이며, 13개 子目 중에 마지막에 "地理"를 배치했다.[65] 문헌의 수량에 대해 "地理類 65家, 106部, 1292卷(저술자의 이름이 생략된 것은 31家, 李播 이하 저자를 수록하지 않은 것이 53家), 989卷이다"[66]라고 했다. 지리류 문헌을 『總目』의 子目과 比定해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표 9>「新唐書·藝文志」에 수록된 지리류의 분류

/	지리서	比定
①	「三輔黃圖」, 「皇甫舊事」, 「洛陽伽藍記」, 「西京雜記」, 「關中記」, 「後魏洛陽圖」, 「洛城圖」, 「洛陽宮殿簿」, 「東都記」, 「兩京新記」 등	宮殿
②	「元和郡縣圖志」, 「括地志」, 「輿地志」, 「後主諸州記」, 「隋圖經集記」, 「區宇圖」, 「隋地圖」, 「十道志」, 「方志圖」, 「長安四年十道圖」, 「開元三年十道圖」 등	總志
③	「荊州記」, 「豫章記」, 「齊州記」, 「益州記」, 「交廣二州記」, 「湘州記」, 「十三州志」, 「中岳嵩州志」 등	郡縣
④	「山海經」, 「山海經圖讚」, 「水經」, 「水經注」, 「四海百川水源記」, 「漢水記」, 「尋江源記」, 「江圖」, 「山海經圖讚」, 「刪水經」, 「吐魯黃河錄」 등	河渠
⑤	「永初山川古今記」, 「宜都山川記」, 「嵩山記」, 「九嶷山志」, 「諸道山河地名要略」 등	山川
⑥	「交州異物志」, 「南州異物志」, 「京兆郡方物志」, 「凉州異物志」, 「諸郡土俗物產記」, 「扶南異物志」, 「嶺南異物志」, 「桂林風土記」, 「陳留風俗傳」 등	異物 方物
⑦	「廟記」, 「輿駕東幸記」, 「太元事迹記」, 「九江新舊錄」, 「鄴中記」, 「西河舊事」, 「鄴城新記」 등	古迹
⑧	「吳興雜錄」, 「廬山雜記」, 「北戶雜錄」, 「雜地志」, 「雜記」 등	雜記
⑨	「燕吳行役記」, 「海南諸藩行記」, 「雲南行記」, 「述行記」, 「述征記」, 「皇華四達記」, 「巡撫揚州記」, 「使行記」, 「聖賢冢墓記」, 「業道故事」 등	游記
⑩	「西域道里記」, 「南越志」, 「赤土國記」, 「中天竺國行記」, 「游行國外傳」, 「歷國傳」, 「日南傳」, 「眞臘國事」, 「職貢道」, 「奉使高麗伎」, 「高麗風俗」 등	外記

65) 「新唐書·藝文志」 乙部의 "史錄"에는 ① 正史類, ② 編年類, ③ 僞史類, ④ 雜史類, ⑤ 起居注類, ⑥ 故事類, ⑦ 職官類, ⑧ 雜傳記類, ⑨ 儀注類, ⑩ 形法類, ⑪ 目錄類, ⑫ 譜牒類, ⑬ 地理類 등 13개의 類目을 포함한다.

66) 『新唐書』 卷58 「藝文志二」: "地理類六十三家, 一百六部, 一千二百九十二卷. [失姓名三十一家, 李播以下不著录五十三家, 九百八十九卷."

www.kci.go.kr

/	지리서	比定
⑪	「新羅國記」, 「渤海國記」, 「雲南記」, 「四夷朝貢錄」, 「蠻書」, 「雲南別錄」 등	邊防
⑫	「地理志」, 「古今地名」, 「郡國志」, 「太康州郡縣名」, 「晉太康土地記」, 「地域方尺圖」, 「諸道山川地名要略」 등	沿革

「新藝」의 자목을 「隋志」와 「총목」 등과 比定해 분류하면 대략 ① 宮殿, ② 總志, ③ 郡縣, ④ 河渠, ⑤ 山川, ⑥ 異物・方物, ⑦ 古迹, ⑧ 雜記, ⑨ 游記, ⑩ 外記, ⑪ 邊防, ⑫ 沿革 등 1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67]

주목할 점은 「新藝」는 「隋志」처럼 「山海經」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三輔黃圖」라는 秦代의 咸陽과 漢代의 長安의 "宮殿"을 건설하는, 즉 都城 지리학의 저술로 시작했다는 점이다. 「隋志」와 비교해 「산해경」은 비록 지리서로 분류는 했지만, 과거 古地理書의 독보적인 지위는 부정하고, 기타 「水經注」 등과 함께 일반적인 지리서로 인식했다. 宋代에 이르러 지리 지식은 경험의 누적과 자연현상의 반복적인 측정에서 획득된 "述"의 지식체계는 더욱 강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山海經」이 갖는 전대의 의미는 철저하게 부정되었던 것이다. 南宋시기 유학자인 朱熹는 이 책을 「楚辭・天門」을 해석하는 주석서로 인식, 天文・術數 분야의 이단적인 참고서로 보았다.[68] 심지어 후대 「송사・예문지」에 이르러서는 「山海經」을 地理類에서 제외하고 子部인 五行類에 배치하기도 했다.[69] 宋代에 이르러 漢唐이래 「산해경」으로 대표되는 고전지리학의 가치는 점차 희석되면서 宋代에 이르러 지리 지식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했다.[70]

---

67) 12가지 정도의 분류 항목은 「隋志」와 「總目」의 子目을 근거로 比定한 것이다. 이러한 다수 주관적인 분류는 「新唐書・藝文志」는 「총목」이나 다른 私撰 목록서의 분류처럼 해당 도서 분류에 대한 總序, 小序, 혹은 解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 목적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두고 地理類 子目의 대략적인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사용했다.

68) 內藤湖南, "支那史學史," 「內藤湖南全集」(11冊) (筑摩書房, 1969), 93-95.

69) 「宋史」 卷206 「藝文志(五)」, 5258쪽.

70) 이러한 지리학의 변화는 송대의 官撰은 물론 私撰 목록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南宋시기 陳振孫이 저술한 「直齋書錄解題」에서도 「山海經」을 평하하며 "「산해경」에서 기술한 괴물을 나는 감히 언급하지 못하겠다(「山海經」所書怪物, 余不敢言之也)"라는 司馬遷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可謂名言"이라 했다(陳振孫, 「直齋書錄解題」 (上海古籍出

www.kci.go.kr

근본적인 변화의 기저에는 "疆理天下"의 강화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표 9>처럼 "宮殿"과 관련된 「三輔黃圖」에서 시작해 總志의 성격을 보유한 「元和郡縣圖志」 등의 저술과 분류 항목은 이후 「총목」 지리류의 근간이 되었다. 다시 말해 「新志」로 대표되는 송대 지리학은 "疆理天下"와 "王化"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고, 正史의 史志 저술의 근거자료가 되는 다양한 정치와 연혁지리서가 "⑫ 沿革"처럼 그 문헌 분류와 가치는 꾸준히 후대로 계승되었다.

송대에 이르러 지리서의 인식이 점차 명확해지고, 체계화되어 가면서 지리 학술과 지리서는 점차 왕조 지리학의 범주로 제한되고 고착되어 갔다. 宋代의 「新藝」는 당대의 「隋志」와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史學과 地理學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上古시기 三皇과 五帝 이래의 시대 순서와 왕조의 흥망과 始末, 僭濫과 僞亂 등은 사관이 모두 상세히 기록해 구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傳記, 小說 및 方言, 地理, 職官, 氏族 등은 모두 史官의 分派에서 등장한 것이다."[71]

그래서 송대의 지리학은 전국규모의 總志, 州郡地理, 山水, 河渠, 方物・風物, 游記, 古迹, 外記, 邊防 등의 지리류의 분류 항목으로 정착되었다.

「漢志」 이후 정착된 연혁지리를 근간으로 송대의 지리학은 더욱 사학과 사서편찬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지리 문헌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었다. 「예문지」의 群書는 질서 없이 문란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상의 <표 9>처럼 일정한 학과의식과 학과의 세분화를 근거한 것이다. 푸코의 "분류하기"란 송대의 목록학자인 鄭樵가 말한 "분류항목의 체례가 분명해지면 학술은 스스로 분명해진다"[72]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송대의 학술과 학술사의 변화, 즉 초보적인 학과의식이 독립하는 경향을 대변했다. 宋代의 이러한 경향은 「宋史」와 「明史」의 「藝文志」에 고스란히 전승되었고,[73] 청대의 「總目」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版社, 1987), 237-238).

71) 「新唐書」 卷57 「藝文志(一)」: "至於上古三皇五帝以來世次, 國家興滅終始, 僭竊僞亂, 史官備矣. 而傳記、小說, 外暨方言、地理、職官、氏族, 皆出於史官之流也."

72) 鄭樵, 「通志」 권63 「校讐略」: "類例旣分, 學術自明."

www.kci.go.kr

5.『총목』史部 地理類의 子目 분류와 그 특징 - "疆理天下"의 강화와 집대성

5.1 <총목> 지리류의 子目과 그 분류 특징

청대에 乾嘉연간에『총목』이 저술되었다.『총목』의 地理類는 史部 아래에 편재되어 ① 宮殿疏, ② 總志, ③ 都會郡縣, ④ 河渠書, ⑤ 邊方, ⑥ 山川, ⑦ 古迹, ⑧ 雜記, ⑨ 游記, ⑩ 外紀 등 10개 子目이 있다. 地理類의 "小序"는 전통 분류법의 단점과 폐단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각 子目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언급했다.

> "古代의 地志는 方域, 山川, 風俗, 物產 등을 수록했는데 그 책은 (산실되어) 지금 볼 수가 없다. (중략)『元和郡縣圖志』는 古迹의 내용을 포함했는데, 아마도『山海經』의 체례를 차용했기 때문일 것이다.『太平寰宇記』는 人物에 관한 내용과 함께 藝文 등도 수록하는 등, 州縣志 저술이 범람했다. 元・明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列傳은 마치 家牒처럼, 藝文은 集 보다 많아졌다. 지엽적인 것이 중심보다 중시되고, 輿圖는 부록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중략) 지식인은 잡다한 내용만을 (지리지에) 수록하니 이는 古法이 아니었다. 허나 이런 현상은 더욱 가중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저술은 제거하고 기준에 합당한 것만은 선별했고, 중복되는 저술은 모두 (저록에서) 배제해 '存目'에 두었다. 본편의 항목으로 宮殿을 서두에 둔 것은 궁궐을 추존하기 위함이고, 다음의 "總志"는 大一統의 내용이고, 다음의 都會郡縣은 疆域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河防', '邊防'은 實用을 숭상함이고, 다음의 山川, 古迹, 雜記, 游記는 모두 다른 사건들을 고증하기 위함이다. 다음의 外記는 대외적인 견문을 넓이기 위함이다. 그리고『山海經』과『十洲志』의 부류는 잡다한 小說같은 체례로 각 항목에서 수록하지 않았다."[74]

---

73)『宋史・藝文志』地理類의 문헌은『水經』에서 시작해서『大寧監圖經』까지 407部 6,196卷을 수록했는데, 전체적인 類目의 구성은『新唐書・藝文志』과 유사하다. 반면에『明史・藝文志』의 경우는『水經』이란 전통적인 지리적 체계 계승보다는 현재의 "실용"과 "術"의 학술적 체계를 강조했다. 그래서『大明志書』라는 勅書에서『職方外紀』까지 471部 7,498권을 수록했다. 특히『明史』의 지리 서목은 淸代 지리학의 가치인 "疆理天下"와 "王化"의 강화라는 가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正史 편찬의 가치관은 궁극적으로『總目』에 의해 더욱 극명하게 구현되었다.

74)『四庫全書總目提要』『史部・地理』小序: "古之地志, 載方域、山川、風土俗、物產而已, 其書今不可見. (중략)『元和郡縣志』頗涉古迹, 蓋用『山海經』例.『太平寰宇記』增以人物, 又

www.kci.go.kr

「총목」 편찬관은 唐宋과 元明시기 지리서의 저술 경향을 총체적으로 개괄하면서, 등장하는 체례와 내용상의 단점을 비교적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특히 '통합'과 '종합'적 성격의 지리서의 내용이 점차 家譜나 文集처럼 체계적인 지식분류 체계를 상실하고 雜學으로 전락하는 경향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학술적인 입장의 근저에는 「山海經」을 신화와 허구적 내용이라고 비판한 宋代 지리학적 전통이 있다. 「수서·경적지」에서 "地理"라는 類目이 처음 등장한 이래 「총목」은 관찬목록서로는 최초로 10개의 구체적인 子目을 분명하게 확정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四庫全書總目提要」의「史部」地理類의 분류

	子目	部	卷	%	性格	도서
①	宮殿疏	2	11	0.2	尊宸居	「三輔黃圖」, 「禁扁」
②	總志	7	941	19.6	大一統	「元和郡縣圖志」, 「太平寰宇記」, 「元豊九域志」, 「輿地廣紀」, 「方輿勝覽」, 「明一統志」, 「大清一統志」
③	都會郡縣	47	2,752	57.3	辨方域	「吳郡圖經續記」, 「乾道臨安志」, 「淳熙三山志」, 「吳郡志」, 「新安志」, 「剡錄」, 「嘉泰會稽志」, 「嘉定赤城志」, 「澉水志」, 「寶慶四明志」, 「景定建康志」, 「景定嚴州續志」, 「咸淳臨按志」, 「至元嘉禾志」, 「齊乘」 외 47部
④	河渠	23	507	10.5	崇實用	「水經注」, 「吳中水利書」, 「四明它山水利備覽」, 「河防通議」, 「治河圖落」, 「浙西水利書」, 「河防一覽」, 「北河紀」, 「敬止集」, 「三吳水考」, 「兩河清彙」, 「居濟一得」 외 24부
⑤	邊防	2	24	0.5	崇實用	「籌海圖編」, 「鄭開陽雜著」
⑥	山川	7	113	2.3	備考核	「南嶽小錄」, 「廬山記」, 「赤松山志」, 「西湖遊覽志」, 「桂勝」, 「欽定盤山志」, 「西湖志纂」
⑦	古迹	14	125	2.6	備考核	「洛陽伽藍記」, 「吳地記」, 「長安志」, 「雍錄」, 「武林梵志」, 「江城名蹟」, 「汴京遺蹟志」, 「營平二州地名記」, 「南方草木狀」, 「石柱記箋釋」, 「關中勝蹟圖志」, 「金螯退魚筆記」
⑧	雜記	28	213	5.6	備考核	「荊楚歲時記」, 「北戶錄」, 「桂林風土記」, 「嶺表錄」, 「益部方物略記」, 「岳陽風土記」, 「東京夢華錄」, 「六朝事迹編流」 외 20부

偶及藝文, 於是爲州縣志書之濫觴. 元明以后, 体例相沿. 列傳侔乎家牒, 藝文溢於總集. 末大於本, 而輿圖反若附彖. 其間假借夸飾, 以侈風土者, 抑又甚焉. (中略)然踵事增華, 勢難遽返. 今惟去泰去甚, 擇優雅者錄之. 凡蕪濫之編, 皆斥而存目. 其編類, 首宮殿疏, 尊宸居也. 次總志, 大一統也. 次都會郡縣, 辨方域也. 次河防, 次邊防, 崇實用也. 次山川, 次古迹, 次雜記, 次游記, 備考核也. 次外記, 廣見聞也. 若夫「山海經」、「十洲記」之屬, 體雜小說, 則各從其本類, 茲不錄焉."

www.kci.go.kr

	子目	部	卷	%	性格	도서
⑨	游記	3	15	0.3	備考核	「游城南記」, 「河朔訪古記」, 「徐霞客游記」
⑩	外記	17	98	2.0	廣見聞	「佛國記」, 「大唐西域記」, 「宣和奉使高麗圖經」, 「溪蠻叢笑」, 「諸蕃志」, 「眞臘風土記」, 「島夷志略」, 「朝鮮賦」, 「海語」, 「東西洋考」, 「職方外紀」, 「赤雅」, 「朝鮮志」, 「異域錄」, 「皇淸職工圖」, 「坤輿圖說」, 「海國聞見錄」
총합계		150	4,799			

「총목」 지리류에 수록된 목록은 150부의 4,799권인데 이를 자목별로 구성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③ 都會郡縣가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② 總志가 19%, ④ 河渠가 10.5% 등의 점유율을 보인다. 앞서 지적했지만 ③ 都會郡縣는 正史 「地理志」의 저술의 근간이 되었고, 沿革地理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④ 河渠는 치수와 수리를 핵심으로 正史의 史志에서 「河渠書」와 「溝恤志」로 등장을 했다. ② 總志는 隋唐 이후 출현한 '一統志'의 성격을 갖는 지리저술로 明淸시기에 집대성되었다. 이상 3가지 子目의 지리서는 "疆理天下"와 "敎化", 그리고 "王化"의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이며, 史學의 "紀"와 "傳"의 이해를 심화하는 "述"의 학술적 지식체계의 핵심이다.

「산해경」의 평가와 분류와 관련해 四庫館인 姚鼐는 기본적으로 주희의 주장을 계승하고 있지만, 반면에 도서 분류상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 "책 속에는 山水를 서술하면서도 鬼神과 怪異한 것을 많이 참고하여 「道藏」에도 수록되었다.(중략) 그러나 자세히 본서의 要旨를 검토해보면 黃老에도 속하지 않는다. 道路와 山川은 대체로 고증하기가 어려우며,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근거했기 때문에 백에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었다. 여러 학파들이 모두 이 책을 지리서의 효시로 봤지만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상 가장 오래된 小說類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75]

「山海經」에 대해서 송대의 朱熹와 청대의 姚鼐는 유사하지만 분류와 평가를

75) 「四庫全書總目提要·子部」 小說家類(三): "書中序述山水, 多參以神怪, 故「道藏」收入 (中略) 究其本旨, 實非黃老之言. 然道里山川, 率難考據, 按以耳目所及, 百不一眞, 諸家幷以爲地理書之冠, 亦未爲允. 核實定名, 實則小說之最古者爾."

www.kci.go.kr

대해서는 서로 달랐다. 즉 주희는 反유가사상과 전통 관념의 고수라는 관점을 견지했고, 四庫館인 姚鼐는 당시 학술 전통인 考據學의 관점에서 실사구시의 관점을 통해 초기의 小說로 보았다.[76]

5.2 <총목> 지리류와 存目의 구성

주지하듯 「總目」에 수록된 서목은 크게 '著錄'과 '存目'으로 양분된다. 著錄이란 四部의 핵심 저술이고, 存目이란 서목만을 수록한 것을 말한다. 存目이란 "도서 중에 속되고, 일천하고, 그릇되고, 오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도서는 그 서명만을 남긴다"[77]라는 근거로 乾隆 38년(1773) 명에 의해서 체례가 확정되었다. 四庫館은 校閱을 통해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저술이나, 당시 정치사상과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奸臣의 저술은 모두 存目으로 분류했다.[78]

<표 11>「총목」 지리류에 수록된 存目의 분류와 수량 비교

/	子目	部	卷	%
①	宮殿疏	3	3	0.06
②	總志	17	437	8.9
③	都會郡縣	180	2467	50.5
④	河渠	52	246	5.0
⑤	邊防	21	83	1.6
⑥	山川	97	900	18.4
⑦	古迹	37	372	7.6
⑧	雜記	42	176	3.5
⑨	游記	21	123	2.5
⑩	外記	34	83	1.7
총합계		504	4,890	99.76

76) 켄트가이 지음, 양후웅 옮김, 「四庫全書」 (생각의 나무, 2009), 250-251.
77) "其中俚淺訛謬者, 止存目名." (四庫全書研究所整理, 「四庫全書總目提要」 (中華書局, 1997), 3).
78) 鄧德生, 「試論「四庫全書總目」中的"存目"」 1期 (貴州大學出版社, 1995), 91.

www.kci.go.kr

「총목」 地理류의 수록된 存目 수량은 著錄의 수량 많은 풍부한 서목을 구비했다. 위의 표와 같이 각각 都會郡縣이 50%, 山川이 18.4%, 總志가 8.9%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저록과 존목의 서목의 구성 비율을 대조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주목할 점은 存目의 경우 자연 지리적 성격의 "⑥ 山川"과 "⑨ 游記"의 구성 비율이 월등이 높았고, 著錄의 경우는 ② 總志와 ① 宮殿疏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存目은 자연 지리적 성격의 지리저술을 강조했고, 저록은 一統志의 저술을 많이 수록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과 저록과 존목의 관계는 어떠한지 추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12>「총목」 지리류의 著錄과 存目의 子目별 구성 비율

子目	宮殿疏	總志	都會郡縣	河渠	邊防	山川	古迹	雜記	游記	外記
著錄	0.2	19.6	57.3	10.5	0.5	2.3	2.6	5.6	0.3	2.0
存目	0.06	8.9	50.5	5.0	1.6	18.4	7.6	3.5	2.5	1.7

「총목」의 地理類 저술은 史部에 예속되어 ③ 都會郡縣, ④ 河渠, ⑥ 山川, ② 總志 등의 子目을 중심으로 왕조의 "疆理天下"와 "敎化", "王化"를 설명하는 "述"의 학술적 기능을 수행했다. 「총목」 지리류의 문헌분류가 지향하는 "尊宸居", "大一統", "辨方域", "崇實用", "備考核", "廣見聞"이란 가치란 비교적 분명한 지식 체계의 구비와 학문적 독립성을 근거한 후에 등장한 가치관이다. 때문에 類目과 子目의 확정은 다름 아닌 장학성이 말한 "辨章學術"과 "考鏡源流"의 실천이고, 이는 중국의 지리학과 지리 문헌은 점차 史部의 기타 類目과 구분되며 독립적 성격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www.kci.go.kr

6. 결 론

선진시기 중국의 지리와 지리 문헌은 經學의 "地理"와 數術의 "形法"이란 분류 개념으로 양분되었다. 이후 지리는 「七略」, 「隋志」, 「新藝」, 「총목」 등에서 史學의 예속된 "述"의 학문으로 정사 史志의 「地理志」와 함께 공존했다. 사관제도와 관찬제가 정비되면서 지리학과 지리 문헌은 「紀」와 「傳」이 學을 위한 "王化"와 "敎化"라는 "疆理天下"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政治地理"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또한 "都會郡縣"과 "大一統"을 실현을 위한 "沿革地理"의 등장과 이의 보편화는 지리가 역사학에 예속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이후 왕조지리와 연혁지리는 중국의 지리 문헌과 전통 지리학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근대적인 지리학의 출현과 관련하여 19세기 후기, 新지리학을 개창한 독일의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은 일련의 저술을 통해서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며 토지 위의 한정된 영역을 "공간, 혹은 지역(raum)"이라고 했다.[79] 거주지역의 한계는 거주 가능한 지역의 邊方地帶(frontier)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산다고 주장했고, 인구이동은 문명 발달을 지배하는 중요 요인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河川이나 山脈은 인구이동에 가장 큰 장애물이며, 국가란 이익, 능력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확대나 축소하고 공간이란 인간사회와 자연적 환경이 연관된다고 했다. 또한 국경의 확대란 국가의 내적인 힘의 반영이며, 강력한 국가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일정한 공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라첼은 "文化景觀(cultural landscape)"이란 "역사적 경관"이며, 인간이 거주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상황의 사본이라 했고, 인류는 문화적 속성으로 만들어진 구성체라는 "文化地理地域(cultural geograpical province)"의 개념을 수립했다.[80]

---

79) 「정치지리학(Polikische Geographie)」(1897년)과 「人類地理學 1·2·3」(1881-1889) 등의 저술이 있다. 그는 「인류지리학」 제1권(1882)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었고, 제2권(1891)에서는 인간의 주체성, 「민족학」 3권에서는 문화단계설을 주장하였다

80) 이상에서 언급한 라첼의 주장은 이희영, 「地理學史」 (법문사, 1995), 191-196의 내용을 참고.

www.kci.go.kr

라첼의 개념을 섣불리 중국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역사가 유사 이래 분열과 통일을 거듭하며 그 세력을 인접 지역으로 팽창하며 거대 帝國을 건설했다는 점. 그리고 漢族과 인접한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존적 질서의 수립했다는 점. 특히 이 과정에서 등장한 지역, 즉 邊境地帶를 매개로 中華와 四夷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文化地理地域"을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그렇다면 중국 역대 왕조는 地域과 邊境으로 형성된 華夷와 四夷에 내재했던 문화적, 지역적 이질감을 '疆理天下'와 '大一統'을 통해 지리적 역사를 함께 공감하도록 만드는 "문화경관"의 가치를 강조, 혹은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史學의 史志, 그리고 「총목」의 地理類의 "都會郡縣", "河渠", "邊防", "山川", "古迹"과 "游記" 등의 子目 세분화 하여 '일체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추후에 역사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疆理天下", "大一統", "王化" 등의 이념이 담긴 지리 문헌, 특히 지리지에 투영된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고, 마치 라첼이 주장한 "역사적 경관"과 "文化地理地域"이 갖는 내적인 가치와 역사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 이것 역시 본 연구가 남긴 흥미로운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史記」, 「三國志」, 「晋書」, 「陳書」, 「漢書」, 「後漢書」, 「宋書」, 「南齊書」, 「梁書」, 「南史」, 「北齊書」, 「魏書」, 「周書」, 「北史」, 「隋書」, 「舊唐書」, 「舊五代史」, 「新唐書」, 「新五代史」, 「宋史」, 「遼史」, 「金史」, 「元史」, 「明史」, 中華書局.

「管子」, 「孫子兵法」, 「戰國策」, 「淮南子」.

許愼(漢). 「說文解字」. 中華書局, 2009.

鄭玄 注. 「禮記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王欽若(宋) 等編纂. 「册府元龜」. 中華書局, 2006.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上海古籍出版社, 1987.

www.kci.go.kr

馬端臨(元).「文獻通考」. 中華書局, 1986.
鄭樵(明).「通志」. 中華書局, 1990.
四庫全書硏究所整理.「四庫全書總目提要」. 中華書局, 1997.
姚名達.「目錄學」. 商務印書館, 1934.
姚名達.「中國目錄學史」. 上海古籍出版社, 2005.
將元卿.「中國圖書分流之沿革」. 中華書局, 1946.
侯仁之.「歷史地理學的理論與實踐」. 上海人民出版社, 1979.
金毓黻.「中國史學史」. 河北敎育出版社, 2003.
張舜徽.「漢書藝文志通釋」. 湖北敎育出版社, 1990.
翦伯贊.「中國史綱要」(上). 人民出版社, 1994.
靳生禾.「中國歷史地理文獻概論」. 山西人民出版社, 1987.
傅榮賢.「「漢書・藝文志」硏究源流考」. 黃山書社, 2007.
楊東蓴.「中國學術講話」. 江蘇敎育出版社, 2005.
章學誠 著, 王重民 通釋.「校讐通義通釋」. 上海古籍出版社, 2009.
趙益.「古典術數文獻術論考」. 中華書局, 2005.
陳曉華.「"四庫總目學"史硏究」. 商務印書館, 2008.
內藤湖南.「支那史學史」,「內藤湖南全集」(11册). 筑摩書房, 1969.
鄧德生. <試論<四庫全書總目>中的"存目"> 1期. 貴州大學出版社, 1995.
王雙倍.「中國歷史地理文獻的類型及其特徵」.「歷史敎學」, 1998.
廖良梅. "略論唐代史官制度."「杭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6卷 第1期(2001).
華林甫.「二十世紀正史地理志硏究綜述」.「中國地方志」2期. 2006.
華林甫.「新修「地理志」的學術理論與編纂實踐」.「淸史硏究」 제3기. 2008.
釋道宣.「廣弘明集」. 東國譯經院, 2000.
徐敬浩.「山海經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미셸푸코 저, 이광래 역.「말과 사물」. 민음사, 1995.
李喜演.「地理學史」. 法文社, 1995.
켄트가이 지음, 양후웅 옮김.「四庫全書」. 생각의 나무, 2009.

www.kci.go.kr

余慶蓉, 王晉卿 공저, 南台祐, 宋日基 역.「중국목록학사상사」. 태일사, 2009.
역사지리연구모임.「역사지리학강의」. 사회평론, 2011.
趙永來. "「四庫全書總目」史部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연구."「書誌學硏究」제 44집(2009). 서지학회.

www.kci.go.kr